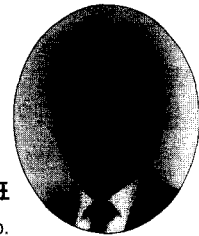


# ISO TC22 회의에 참석하여

My Experience for the 29th ISO TC22 Plenary Meeting in Lodon



마 규 하 · 니오큐리서치사 대표  
Kyu-Ha Ma · NeO Q Research Co.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런던 및 파리에서 개최된 29회 ISO TC22(Road Vehicle) 및 TC110/SC3 회의에 다녀온 소감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출장은 한동철 회장의 주선으로 대표단에 늦게 합류하였기에 500페이지에 달하는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도착한 다음날 아침부터 3일간 계속되는 회의에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런던과 파리회의의 공허 자동차나 운반기구에 관한 것이기에 평소 경험한 범위안에 있었으며 회의는 지난번 회의의 결과와 분과 위원회별 각각 실무위원 회들의 활동내용 소개 및 새로운 제안에 대한 설명 및 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순서와 차기 회의장소 및 일정을 정한 다음 회의 결론의 결의문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런던에서는 첫날 회의후 리셉션이 있었고 다음날은 회의후 과거 발전소를 개조한 데이트 (TATE)현대미술관을 관람한 후 유서 깊은 영국기

계학회건물에서 만찬을 즐기며 담소 할 수 있었다. 상당히 잘 배려한 순서였다고 생각하였다.

회의내용과 별도로 한가지 특이한 것을 기술한다면 캐나다에서 온 타 기술위원회속의 위원은 수소 기술에 대한 안전 제시와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미국규격 J1739인 FMEA를 TC22에 산하에 두자는 제안은 매우 흥미로웠다.

전자는 향후 연료전지와 관계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설계, 공정, 기계 등에서 생기는 실패 원인분석 기법인데 이를 TC22 산하에 두자는 제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제안이었다.

그리고 의장인 불란서자동차협회의 루노 출신 세레는 영어를 하면서도 별도의 통역을 두고 불어로 사회를 보고, 독일 및 이탈리아대표는 처음부터 영어로 발언을 하였으나 통역은 없었다. 만찬장에서 의장은 영어로 인사를 한 것은 통역이 없었기 때문일까?

나중에 파리에서 있었던 TC 110/SC3 회의에서

는 같은 불란서인 의장은 처음부터 영어로 사회를 보았다. 아마도 불어와 영어로만 할수 있도록 규정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양대 진영의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한국은 그간 1995년 이래 처음 참가하는 관계로 분위기 파악에 노력하였지만 반면 일본이나 미국, 불란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만근 출석한 입장이라 여유만만 하였다.

일본은 분과위원회 SC22 모터사이클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실무위원(WG)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의한 결과 언제라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대표들은 노트북으로 자료의 입출력을 수시로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한국은 프라그가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다음 회의장소는 일본으로 결정되었는데 처음 제안한 일정이 2002년 월드컵 관계로 9월경으로 변경 되었다. 개최도시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이때는 한국도 몇 개의 제안서를 사전에 제출하면서 충돌시험분야, 제동시험, 전기전자장치, 엔진시험, 분사장치, 차량동력, 전기적도로차량, 모터

사이클 등에서 실무위원(WG)으로 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회의 3일째인 금요일 오후 3시경 회의가 끝난 다음 관광이나 할 참이었는데 마침 예의 겨울비가 오고 있었다. 귀중한 시간이였기에 비를 맞으며 박배이며 런던브릿지의 야경을 감상하였다. 다음날 파리로 출발하기 앞서 영국 박물관을 구경하였는데 백만파운드를 기증하고서야 한국관 코너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전시품이 수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듯한 느낌을 주었다. 6년전에 방문 시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자연사박물관만을 구경하였는데 이번은 운 좋게 영국이 자랑하는 대영박물관을 볼수 있었다.

마침 동행인 박심수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여행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파리에서 일정은 일요일 하루 여유가 있었기에 여유롭게 몽마르뜨 언덕을 올라 마침 아침 미사의 정숙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전보다 리프트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거리의 화상은 추워서인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담 성당을 둘러 보았으나 탑내부에는 시간관계로 올라 보지 못하였다. 물론 파리의 명물 에펠탑을 빼 놓을수 없었다. 많은 인파로 다소 기다려서야 표를 구할 수 있었고 1층 까지만 올라 시내의 여러 경관을 내려 보았다.

에펠타워의 꼭지점의 흔들림이 바람이나 태양열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볼때 약 10센티미터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아주 적은 모형을 이용하여 실현하는 전시품은 매우 흥미로웠다.



## 국제회의

그 많은 관광객 가운데 정말 우연하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한 현대 유럽기술센터의 정차장을 내려 오는 계단에서 만나게 되어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오후 늦게 상제리제 L'Alsace 에서 점심을 여유롭게 즐기며

월요일 있을 다음 회의내용에 대하여 생각하며 피로를 풀었다.

전날 미리 알아둔 회의장소에 도보로 이동하여 참석자와 상호 인사를 나눈 다음 회의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경청하였다. 처음 의제는 SC3분과위원회서 제시한 내용이었는데 시속 4Km 이하 그리고 20인치 이하의 코스타 바퀴와 휠에 대한 내용이었다.

처음 Industrial Trucks라 하였기에 한국적인 생각에서 상용차와 휠을 생각하였으나 예상밖의 내용이었다. 다행하게도 지참하였던 (주)수성의 운빈기구 카다로그를 프랑스 및 독일대표에게 배포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TC110/SC3회의의 내년도 개최장소는 미국이 되었고 시기는 11월경인데 그때 각종 행사가 많아 일정은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다.

각종 논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규격이나 규정이 수출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회의를 통하여 해당분야와 토론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여행중 다행스럽게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 큰 소득중의 하나가 되었



다. 승차권은 일회용, 일일용 또는 몇일용 등 각각 편리하게 용도에 맞게 구입할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지상의 버스나 리프트 카를 함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에 호텔을 정할때 경우에 따라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끔 지하철내에서 악사가 연주하는 모습과 인형극을 감상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여행시 가장 중요한 현지 화폐의 교환문제는 보통 호텔의 경우 환율이 시내은행 보다 10%가량 높기 때문에 가급적 공항에 도착할 때 필요한분을 교환하고 또한 잔금에 대하여서는 국내 은행에서 교환하는 것이 공항보다 유리하다.

환율이 높아질 때는 T/C 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현찰보다 T/C 가 현금화할 경우 현찰보다 유리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EURO 화폐단위가 사용되나 영국만은 아직 파운드 화폐 뿐이다. 다른 EU가 냉국은 대부분 자국화폐와 함께 유로화 표시를 하는것 이상예이다. (1EUR=6.55FRF)

이번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에 감사하고 그리고

현대 유럽기술센터의 대표 및 담당 차장이 현지에  
서 합류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된점을 지면을 통하  
여 감사함을 표한다.

끝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도로자동  
차 분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더불어 잊지말아야  
할 것은 한국표준규격의 현실화 즉, 국제규격에 대  
한 정합화 및 부합화에 대한 관심과 홍보 그리고 한  
국규격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 속히 그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ISO TC 22 내용 소개**

- 가맹국 : 정회원국 18개국 한국 포함 옵저버 합  
치면 64개국
- 범 위 : 자동차 자전거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복  
합차량 견인식차량
- 조 직 :

TC22	직속 작업반	WG01	8개	SC13	도로차량에 적용가능한 인공공학	WG	4
SC1	정화장치	WG	1	SC14	외부고정 장치	WG	2
SC2	제동시스템	WG	5	SC15	상용차량 버스부품의 호환성	WG	2
SC3	전기 및 전자장치	WG	9	SC16	화재위험의 자감	WG	1
SC4	3.5톤이하 트레일러	WG	1	SC17	시계 (Visibility)	WG	0
SC5	엔진시험	WG	7	SC18	차륜	WG	4
SC6	치수질량의 용어	WG	1	SC21	전기적 도로차량	WG	2
SC7	도로차량 분사 장치 및 필터	WG	6	SC22	모터사이클	WG	9
SC8	조명 및 신호	WG	2	SC23	모페트	WG	6
SC9	차량동력 및 도로부하력	WG	6	SC25	천연가스 도로차량	WG	3

※ 추 가 : 이번회의시 입수한 자료를 1권(200쪽) 2권(220쪽)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학회에 비치하였으므로  
관심있으신 회원께서는 많은 참고 바랍니다.

〈마규하 감사 : makyuha@chollian.net〉

**나의 오늘은**

나의 오늘은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로 향한 발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낮 학교에서 배운 것이 누군가를 대통령이 되게 한 귀중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족이 반겨 준 것은 누군가가 가장 목말라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누운 잠자리가 누군가에게 꿈 같은 왕궁의 침실일 수 있습니다.